

광주시, 꿈 이루는 '청년도시' 만든다

일자리·주거 등 5개 분야 84개 사업에 1718억원 투입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확대·청년월세 한시 지원 등 추진

광주시가 청년이 꿈을 이루고 정착하기 좋은 '청년도시' 조성에 나선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718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4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지역기업과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집중한다. 특히 기존 '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을 세분화해 단기 일경험을 정규직 전환과 창업지원으로 연계한다. 일경험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정책특

별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소통의 폭도 넓힌다.

지난해 구축한 '청년정책 플랫폼'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청년정책 플랫폼에선 광주시와 자치구, 국가 청년정책을 검색하고, 참여 신청 및 정책제안 등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도 확대한다. 소상공인들이 새로 채용하는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한다.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은 단기 아르바이트 자

리마저 잃게 된 청년에게는 최소 소득 안전망이 되고,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인 소상공인에게는 단비 같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복지·문화분야에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마인드링크' 사업을 확대한다. 광주청년센터는 마음건강 상담소 운영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다. 저학력 청년(N.E.E.T, 은둔형 외톨이) 자립지원사업도 확대해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정책 사각지대를 개선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공동체를 발굴해 활동비와 교육비 등 1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되는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운영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원' 등의 사업에 더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감염병 장기화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광주형 평생주택', '누구나집' 등 쾌적한 주거 공간 건축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김영선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광주시는 그동안 전국 청년정책의 선두주자로서 수많은 우수사례들을 정립해왔다"며 "지난해 정비한 정책·제도적 기반 위에 청년의 삶을 반영한 정책을 단단하게 쌓아 청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 전남도, 300개 선정 지원

전남도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를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소멸위험이 있는 마을의 주민 스스로가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300개 내외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2개 유형으로 ▲마을형, 아파트형, 행복마을리빙랩으로 구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씨앗, 새싹, 열매로 등급을 나눈 마을 브랜드사업 발굴을 위한 '공기빛깔 사업'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육아, 돌봄, 기후위기 대응, 노동인권, 녹색환경, 축제, 불법주차, 쓰레기문제 등을 중점 지원한다. 공기빛깔 사업은 마을 자원조사, 마을 계획 수립, 마을 테마사업 등에 초점을 맞춘다.

사업에는 도내 소재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동체의 사업계획 및 사업 수행 역량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바라면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군에서 1차 심사하고, 공기빛깔 사업은 도에서 1차 심사한 후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한다. 결과는 오는 3월 초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을 귀농귀어인 지원 전남도, 883억 역대 최대

전남도가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에 촉진하고 귀농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올 한 해 역대 최대인 88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귀농귀어를 촉진하기 위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건의 사업을 진행한다. 귀농귀촌 유지 지원사업의 경우 농촌 이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62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예비(초보)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문화 이해와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을 주민 스스로 유지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구입 등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까지를 연이율 2%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규로 귀어인의 집 조성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투입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양 포스코케미칼 방문한 김부겸 총리 김부겸(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 광양시 관계자가 11일 오후 광양시 포스코케미칼을 방문, 민경준 대표로부터 리튬-망간, 리튬-니켈, 리튬-티타늄, 소형전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 농민단체 '재생에너지 공영화' 주민조례 청구

13일 주민발안법 시행에 맞춰 공영·공존 방점 주민 조례안

전남 농민단체가 풍력·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생태계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개발 주체가 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조례 청구에 나선다. 오는 13일 발효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도내 공기업 중심의 공영형, 공동체·생태계 공존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 발안에 나선 것이다. 전남 농민단체는 줄곧 기업 등 민간 자본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어촌 공동체·생태계 파괴형'으로 규정하며 비판해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우송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11일 오후 전남도의회 '전남도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조례안' 토론회를 열었다. 전남 회원 등 농민들이 중심이 된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

회의'가 토론회를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17개 조항으로 된 가정 '전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조례안 초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영화와 공존이라는 양대 축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전남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서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남도지사는 즉시 사회적 해결에 나서도록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

존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에게도 공존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연대회의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최종 검토한 뒤 오는 13일 조례 제정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6개월 이내 청구권자(18세 이상 전남도민) 총수의 150분의 1의 연대 서명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조례안을 수리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심사를 거쳐 1년 내 의결해야 하며, 국회(법률)와 달리 지방의원 임기가 중도에 끝나더라도 의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업능력개발교육 강사 모집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지도할 강사와 교육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업능력개발교육은 1989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직업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취·창업 전문교육과정이다.

공모는 4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이며, 생활분야 정리수납전문가, 피부미용사, 중국어 실전화화, 이류 분야 의류재봉 초급, 중급, 조리분야 제과·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커피바리스타, 컴퓨터 분야 유튜브 영상편집, 코딩지도사 등이다.

해당분야 전공, 자격증 소지 또는 강의 경력에 있는 개인 및 기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및 기관은 2월 8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직업능력개발교육은 취·직업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직업적 소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강사와 교육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